

무용프로그램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 심리 요인 탐색

이 여 름*

목 차

Abstract	III. 연구결과 및 논의
I. 서론	I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Dance program-oriented explor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self-regulating psychological factors

Lee, Yeo-reum ·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When facing with problematic situation, juvenile delinquents often present a tendency to handle it irrationally, react on it extremely impulsively, and interpret it as hostile to them, thus trying to settle it with an aggressive and antisocial means. In this situation, to improve their self-regulating ability for proper judgment and reaction seems to be a crucial requisite to prevent adolescence delinqu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juvenile delinquents' self-regulating psychological factors and examine them in depth through a dance program. For this, a self-regulating ability improving dance program was applied to juvenile delinquents in 15 sessions, and then an open questionnaire survey of 4 dance instructors was carried out to examine juvenile delinquents' self-regulating psychological factors, thus collecting 354 source data. Source data were examined with inductive content analysis and then categorized 18 detail areas in 3 general areas. The 3 general areas of juvenile

* 단국대학교 박사수료

논문투고일: 2014. 10. 20. 심사일: 2014. 11. 21. 게재확정일: 2014. 12. 7.

delinquents' self-regulating psychological factors, experienced by dance instructors through a dance program, were emotional control, self-awareness and positive emotion.

key words: dance program, juvenile delinquents, self-regulating ability

주요어: 무용프로그램, 비행청소년, 자기조절향상

I .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산업화, 현대화와 같은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하는 사회구조를 낳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종 사회병리가 야기되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정책분야에서의 청소년 지도 이념과 청소년 보호육성책의 미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벌어지는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급속한 양적증가와 함께 폭력화, 집단화, 저연령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박소형, 유형근, 조용선, 2013: 820).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가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5%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조직화, 흉악화, 연소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적 문제의 필요에 의해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가치관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무용분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강희(2001)는 비행청소년의 충동 조절을 위한 무용/동작요법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가족 내 불평등, 부당함, 부모 자녀간의 혹은 부부간의 무관심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신세대인 청소년과 기성세대인 부모와의 가치관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부모 자녀간의 민주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김정미(2001)는 실제로 비행청소년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심각한 정도의 거절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박탈당하거나, 상실 등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또 주혜연(2003)은 자신이 연구하는 실험집단인 경기도 J여자정보산업 학교에 재학 중인 17세에서 19세의 여자 소년원생 20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조사한 결과 재혼가정 50%, 한 부모 가정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작은 규모의 집단이라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소년원학교에서 생활하는 비행청소년들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일관된 양육과정을 거치지 못 했음을 예측 할 수 있었다.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인지능력, 미흡한 조망 채택 능력, 쾌락원리의 지배, 낮은 자아존중감, 건강한 대인관계의 결여, 내적긴장감 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원호택, 1991; 이창호, 양미진, 이희우, 이은경, 2005), 특히 타인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충실하기 때문에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이종화, 2011),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절도나 폭력 등의 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변의 민감한 자극이나 갈등에 대해서 스스로의 감정 조절능력이 부족하여 비행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한동주, 2006).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이야기 하는 자기조절이란, 자기가 세운 계획이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능적으로 조직화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인지, 행동, 정서를 조절하고 유지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정의 되어 지며(Pintrich, 2004),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특성 중의 하나로써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가는데 절실히 요구되어 지는 사회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남재희, 2004). 이와 같이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령이나 지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조직화하는 자기조절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의 개념은 행동조절, 정서조절, 인지조절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지조절은 자신의 현재 상태와 추구하는 목표 간의 차이를 모니터하고, 그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인지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Zimmerman, 1995; Zimmerman & Martinez-Pones, 1986). 행동조절은 수행자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등 실제 행해지는 전략을 의미한다(Britton & Tesser, 1991; Karabek & Knapp, 1991). 또 정서조절은, 정서적 경험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는 통제하고, 긍정적 정서는 재조절하는 것을 말한다(Baumann & Kuhl, 2002; Cameron, 2003; Thompson, 1991; 한시완, 김선진, 2011: 126).

비행청소년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처하지 못하고, 매우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한 결과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6)을 보이고 있어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청소년 비행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되고 있다. 비행청소년을 위한 무용프로그램은 미적인 신체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동작을 통해 스스로 신체를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얻게 해

주고, 이러한 자신감과 자기 확신은 어떠한 동작활동에 참여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박민희, 2006: 10-11).

이와 같이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하여 비행청소년들에게 자기조절향상 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기조절향상 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함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II .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의 특성을 대표하여 말 할 수 있는 비행청소년의 무용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는 여자무용교사 4명(평균 연령은 36.25세, 평균 경력은 6.75년)을 비 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나인 유목적표집법(purposeful 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심층적인 정보를 얻으려는 방법으로 연구문제에 적합한 상황에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표집하는 것으로 일반화 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보다는 특정 상황에 대한 심화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청소년기의 비행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소년원학교 학생들과 무용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으며 연구자의 활동에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긍정적으로 연구자와의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표 1>은 연구참여자의 기초배경이다.

표 1. 연구참여자 기초배경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	강사경력	학력	현재
1	무용교사 A	여	32	8년	대학원 졸	예술강사
2	무용교사 B	여	42	5년	대학교 졸	예술강사
3	무용교사 C	여	38	4년	대학원 수료	무용치료사/RDT/예술강사
4	무용교사 D	여	33	10년	대학원 졸	예술강사/대학강사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향상 무용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선정하여 무용수업 중 관찰된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개방형 설문(open-ended question)은 설문 방식을 응답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개방형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의 고찰과 스포츠심리학 박사 3인과 무용전공 박사 출신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개방형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방형 설문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향상 무용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심리적 변화과정에 느낀점과 생각나는 내용을 모두 적어 주세요”(5개 이상)이다.

자기조절능력향상 무용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5)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무용교육의 내용 중 특수학교 청소년의 교육 여건에서 결핍되기 쉬운 문제해결능력, 자아 존중감, 관계성, 표현력(감정 절제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개발된 것으로, 무용학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기본바탕으로 무용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에 목표를 두었다.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과대한 에너지와 결핍된 절제 및 조절 능력에 대한 교육적 조치 내지는 처방으로서의 무용교육은 자아발견(즉흥무용)과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창작무용), 그리고 내적 표출을 위한 에너지 활용(재즈 댄스), 사회성 확립을 위한 공동체 놀이(한국무용)로 구성되어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자기조절능력의 정의와 구성요소인 인지적 조절능력, 정서적 조절능력, 행동적 조절능력의 각 영역별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효과적인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무용프로그램의 절차와 방법들을 고려하여 비행청소년의 무용교육에 총15회기의 자기조절능력 향상 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러한 무용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선정하여 무용수업 중 관찰된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한 것이다. 다음 <표 2>는 자기조절능력 향상 무용프로그램의 내용들이다.

표 2. 자기조절능력 향상 무용프로그램 내용

회기	단계별목표	목표	내용
1회기	관계형성 -자아발견 <즉흥무용>	프로그램 이해 및 규칙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하기 • 모방하기-파트너의 움직임 모방하기 • 통일하기-원으로 대형을 만들어 리더의 움직임을 따라해보기
2회기		라포 및 신뢰감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과 수동-눈을 감은 파트너를 이끌고 다녀보기 • 공간과 시간의 요소를 이용한 즉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공간 누비기 - 그룹이 일정한 공간 안에서 패턴 만들기 - 떼를 지어 다니기 - 높낮이를 달리하여 이동하기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에의한 즉흥-다양한 기분과 성격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투하는 장면을 묘사하기 • 신체에의한 즉흥-신체부분을 강조하여 표현하기 • 주제, 도구에의한즉흥-주제에 맞는 동작 만들기-도구를 이용하여 즉흥적인 주제에 맞게 움직여보기 • 소리에의한 즉흥-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그 소리에 반응하기
4회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자아상확립 <창작무용>	스스로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일상적인 얼굴표정과 습관을 표현하기 • 내가 가장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기
5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감정을 온도로 설정해서 표현하기 • 나의 장래희망을 몸으로 표현해보기
6회기		가족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족의 구성원 및 모습을 표현해보기 • 우리가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보기
7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족의 장단점을 표현해보기 • 우리가족에게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표현해보기 • 내가 바라는 가족의 모습을 표현하기 • 가족들이 나에게 바라는 모습을 표현하기 		
8회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를 정하고 서로 도와 스트레칭하고 안마해주기 • 파트너의 얼굴표정과 기분을 읽어 표현해보기 • 파트너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몸으로 표현 해보기
9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가 몸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사물이나 모양을 맞춰보기 • 그룹으로 모여 뭉치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신체의 한 부분을 이용하여 다양한 포즈 만들어보기
10회기	자기조절 및 통제 -내적표출 에너지활용 <재즈댄스>	내적감정 표현하기 (정서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즈댄스의 기본스텝 동작을 통해 신체각부분을 움직이면서 몸의 중심 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웨이브 동작을 통해서 유연성을 이해한다. • 빠른 비트와 대중적인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회기	단계별목표	목표	내용
11회기	-사회성확립 공동체놀이 <한국무용>	자기조절을 통한 협동 경험 (행동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즈댄스 작품을 구성해 따라해 보면서 다양한 공간이동과 음악을 통한 템포를 느끼며, 상호간의 배려와 행동조절의 필요를 인식하고 상호존중의 중요성을 알아간다.
12회기		행동 통제하기 (행동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용의 장단을 알아보고 소고를 두드리며 즉흥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 파트너가 두드리는 소고 장단을 따라해보며 서로의 장단에 맞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춤춰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악을 이용해 표현되는 감정의 소리에 귀기울여보고 자신과 상대방의 소리와 행동을 인식하면서 자기조절의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한다.
13회기		미래의 내모습 (상위인지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삼을 이용하여 한국춤사위를 경험해본다.-곡선(산, 강, 구름, 파도 등), 직선(나무 길 등) 이미지를 상상해보고 한삼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품을 이용하여 내면의 감정들을 보다 크고 멀리 확장시켜 표출할 수 있다. • 다양한 일상의 동작들을 표현하면서 점차 자신의 미래의 꿈과 희망으로 움직임을 확대해본다.
14회기	발표회	성취감과 만족감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동안 표현하고 배우며 익힌 내용들을 발표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가장 기억에 남는 동작을 나누며 감정전달하기,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
15회기	프로그램 마무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글로 작성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기 • 스스로에게 상장전달하기 • 롤링페이퍼 작성하기 • 수업을 통해 느낀점 발표하기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층면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식적인 면담 2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공식적인 면담 형식은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과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면담은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 1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특성들을 심층적으로 알아보았고,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은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파생되는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자의 사전 동의 후 녹음하였다. 심층적인 면담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로 옮겨 쓰는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전사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파일(file)로 저장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관련문서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사례기록(case record)과 개인 종합 프로파일(profile)을 작성한 후, 향시비교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도 분석법(triangulation)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는 먼저, 심층면담, 관련문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각 연구 참여자별로 사례기록과 개인별 종합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단위화, 부호화 한 후 범주화를 거쳐 향시비교법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하위주제들과 핵심주제들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사례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밀히 파악하여 기술할 내용과 인용문을 선정하였다. 분석과정 중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다각도 접근법에 의하여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개방형 설문 내용은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Merriam, S. B. (1988)이 제시한 삼각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 과정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귀납적 절차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 영역으로 조직화하고,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자기조절능력 심리적 요인의 내용 및 빈도분석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주변의 민감한 자극이나 갈등에 대해서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각종 범죄나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와 함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조절향상 무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가 세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기능적으로 조직화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자하는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이다.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 무용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4명의 무용교수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354개의 원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원자료를 토대로 귀납적 내용 분석한 결과, 18개의 세부

영역, 3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 되었다. 이를 통해 무용교수자가 비행청소년 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경험하는 심리적 요인의 일반영역은 감정조절, 자기인식, 긍정적 정서의 자기조절능력 심리요인으로 명명 되었다. 이는 어떠한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마음을 조절 할 수 있는 감정조절, 자신의 현재 상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자기인식, 또한 정서적 경험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는 통제하고 재조절 할 수 있는 긍정적 정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일반영역의 전체 빈도수는 첫째, 감정조절(163/46.0%), 둘째, 자기인식(99/28.0%), 셋째, 긍정적 정서(43/12.1%), 세부영역 전체의 빈도수는 감정조절 영역에서는 조절된 자기조절(47/28.7%), 과잉행동조절(33/20.2%), 신체조절(29/17.8%), 정서적 불안감 조절(21/12.9%), 참을성(13/8.0%), 불안감 조절(12/7.4%), 호흡조절(1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기인식 영역에서는 자기몸의 인식(22/22.2%), 자기개방(19/19.2%), 자발성(17/17.2%), 주체성(14/14.1%), 자기표현(10/10.1%), 화합 (9/9.1%), 감정인지(8/8.1%) 등의 순으로 마지막으로 긍정적 정서 영역에서는 즐거움(36/39.5%), 활력감(32/34.9%), 관심 (17/18.6%), 자신감(6/7.0%) 등의 순으로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비행청소년 무용프로그램의 후 심리적 변화요인

원자료	세부영역	(빈도%)
		일반영역
표현도 너무 중요하고, 발산도 중요하데, 그럼 왜 무용교육이여야 되나, 바로 무용교육이 조절된 자기표현. 자기에 대한 감정의 표현도 그냥 표현이 아니라 조절된 자기표현, 감정 발산, 조절이거든.	조절된 자기조절 (47/28.7%)	감정조절 (163/46%)
과잉행동. 과잉행동이 왜 나와요. 조절이 안 되니까 과잉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과잉행동조절 (33/20.2%)	
그냥 조절이 아니라 음악이거든요. 타임. 음악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조절이 가능해지거든요.	신체조절 (29/17.8%)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안정적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정서적 불안감조절 (21/12.9%)	
조금은 반항적이었던 소년원학교 학생들이 무용수업을 통해서 점차 마음을 열고 수업 시간을 기다리거든요.	참을성 (13/8.0%)	
힘든 동작이나 외워야 하는 것들의 율동들은 처음에 짜증내고 싫어하다 참을성을 갖는다 그래야 하나, 암튼 큰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을 좀 느낍니다.	불안감 조절 (12/7.4%)	
항상 아이들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한 동작들이 나오니까 그런 감정이 조금 주는듯 했어요		

원자료	세부영역	일반영역
신체적 동작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전 보다 부드러운 호흡을 하더라구요	호흡조절 (11/6.7%)	
자기 몸에 대한 인식. 가능한 것들의 어휘를 주는 거. 그럼 몸만 쓸 줄 알면 되나? 그럼 체육 해야지.	자기몸의 인식 (22/22.2%)	
스스로가 무용이라는 것에 대한 동화에 따른 자기의 개방적 사고가 있어요. 먼저 와서 과거 이야기에 대한 것도 스스로 없이 하기 시작하니까요	자기개방 (19/19.2%)	
되게 수동적이고,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강압적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수업을 같이 하는 선생님이랑 아이들의 변화에 가장 큰 게 자발적인 것, 그리고 능동적으로 변한 것.	자발성 (17/17.2%)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 같아요,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무용프로그램을 왜 하는지를 인지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주체성 (14/14.1%)	자기인식 (99/28.0%)
처음에는 칭찬에 되게 어색해 하더라구요 칭찬해주면 얼굴 변화고 화내고, 자기표현에 인색한거죠 4주차를 넘으면서 그런 인식들이 변한 것이 느껴집니다.	자기표현 (10/10.1%)	
자기의 행동이 상대방의 행동과 연계되어 나타나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장난치고, 반항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상대방의 눈치도 보고 같이 하려하는 느낌, 대인관계의 개선 같은거요	화합 (9/9.1%)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스스로가 잘 컨트롤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감정인지 (8/8.1%)	
한주, 한주, 지날 때 마다 수업을 왜 해야하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발산 즉 감정의 발산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을 느껴요 표정이 밝고 명랑한 느낌이 있어요	즐거움 (17/39.5%)	
무용수업 후 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변화는 활력적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아이들과는 완전 달라지거든요	활력감 (15/34.9%)	긍정적 정서 (43/12.1%)
무용 그리고 수업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관심 (8/18.6%)	
같이 무용공연을 한 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느끼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늘 그들에게만 있던 아이들이 자기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자신감 (3/7.0%)	

1) 감정조절

무용프로그램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심리요인에 나타난 감정조절(163/46.0%)영역의 세부요인은 조절된 자기조절(47/28.7%), 과잉행동조절(33/20.2%), 신체조절(29/17.8%), 정서적 불안감 조절(21/12.9%), 참을성(13/8.0%), 불안감 조절(12/7.4%), 호

흡조절(11/6.7%)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말한다. 또 조절은 균형에 맞게 바로잡고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조화롭게 나타내고자 하는 행동이 바로 감정조절인 것이다. 정적이거나 부정이 강한 감정과 관련된 감정조절의 세부요인인 자기조절, 과잉행동조절, 신체조절, 정서적 불안감조절, 참을성, 불안감조절, 호흡조절 등은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향상 무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가능하도록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무용교수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친구들한테는 조절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친구들의 문제가 바로 정서적인 것을 그냥 발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거든요. 정서의 표현도 너무 중요하고, 발산도 중요한데, 그럼 왜 무용교육이어야 되냐, 바로 무용교육이 조절된 자기표현. 자기에 대한 감정의 표현도 그냥 표현이 아니라 조절된 자기표현, 감정 발산이거든... 이 친구들이 자기의 신체적 인식이 없다보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과잉행동이 왜 나와요. 조절이 안 되니까 과잉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싸움이 나나?. 거리, 존중이 없고, 조절이 안 되니까 얼마만큼 다가가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물러나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 들은 무용교육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용교사 C 인터뷰 중에서)

비행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심리적인 원인으로서는 정신장애, 욕구불만, 정서적 불안감, 충동성 등을 들 수 있다(강희, 2001: 9). 이러한 특성으로 보아 비행청소년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무용교사 C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무용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무용의 요소를 가지고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무용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강제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발적이고 선택적으로 자기조절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을 느끼면서, 그 음악의 템포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면서 자신의 감정조절 능력을 배워 간다는 것이다.

그냥 조절이 아니라 음악이거든요. 타임. 음악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조절이 가능해지거든요. 무용은 너무나 가능한 게, 너무나 쉽게... 마음이 가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담아야 되거든요. 내 몸을 움직이고 있지만, 내 마음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은 ‘못해요. 안 해요.’ 이게 다 이거거든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안 하는 것도 선택이다. 선택, 조절이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조절된 표현, 에너지 발산, 조절된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너가 화도 낼 수 있지만, 너 안에는 그걸 참을 수도 있어. 멈출 수도 있어.’ (무용교사 C 인터뷰 중에서)

무용교사 C의 인터뷰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오정옥(2005)의 비행청소년의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61.2%의 학생들이 무용교육이 정서적으로 주는 영향은 자기감정조절이라고 대답했다. 또 심리적 안정이 된다고 답한 학생이 총 64.2%,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긴다는 57.7%로 비행청소년의 무용교육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에게 무용수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사고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년원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무용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자기인식

무용프로그램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심리요인에 나타난 자기인식(99/28.0%) 영역의 세부요인은 자기몸의 인식(22/22.2%), 자기개방(19/19.2%), 자발성(17/17.2%), 주체성(14/14.1%), 자기표현(10/10.1%), 화합(9/9.1%), 감정인지(8/8.1%)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인식의 요인에서 알 수 있는 자신의 신체와 감정의 생각과 주변 환경을 스스로 파악하고 알아 갈 수 있는 힘이 비행청소년에게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아래의 무용교사 B와 D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여름이 되면서 짧은 팔이 되면서 이제 애들 문신이 나오기 시작 하더라구요. 팔, 다리... 그 문신이 아니고, 너무 흉한 흉터들 있지.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긁힌 자국 일명 ‘담배 빵’ 이라고 하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보기도 흉한, 그런 문신들과 칼자국들이 너무 참 안타깝더라구... (무용교사 B 인터뷰 중에서)

애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 꼬박 주지만, 간식 먹는 시간에 막 치킨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애들이 10Kg씩 쪼뼛... 그리고 살들이 다 터있어. (무용교사 D 인터뷰 중에서)

무용교사 B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몸에 새긴 문신과 흉터를 바라보면서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자제하거나 관리하지 못하여 포기하듯 살이 찌버린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된 무용교사 D는 이러한 행동이나 생활모습은 자신들의 신체를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아동의 역할은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의 역할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로서 행동이 미성숙하므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비행청소년을 위한 자기조절능력향상 프로그램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창조성과 독창성, 표현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인간행동을 변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박상필, 2008: 1).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무용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아래의 인터뷰는 무용교사 C가 경험한 비행청소년이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점차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을 엿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제가 본 아이들의 특징은 안 움직여요. 동작 하나 하나를 충분히 할 것 같은데, 할 줄 알아도 안 움직여. 왜 옆에 애가 보고 있어서... 그리고 옆에 애는 개를 보는게 아닌데도 '왜? 왜? 나봐.' 반응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그거 극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는 '여기 나와서 무용하는게 너무 좋아요.' 하면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점점 자신을 여는게 보이는거지. 수업을 같이 하는 선생님이랑 아이들의 변화에 가장 큰 게 자발적인 것, 그리고 능동적으로 변한 것. 그리고 자발적인 것 안에는 자기 선택 주도적인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제일 변했던 것 같아요. (무용교사 C 인터뷰 중에서)

이세옥(2007)은 무용교육은 인간 자체를 다루는 기본 교육으로 신체를 도구로 사용하지만, 내적인 표현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신체와 영혼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아름다움을 창출해 나가며, 이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올바른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완성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성장과 타인의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자신감의 기초가 되며, 단체와의 조화를 위한 배려, 소속감, 친밀감, 리더십 등을 길러 준다고 하였다. 지적인 기능은 관찰을 통한 모방, 추리, 연상, 상상, 창의성을 개발하고 상상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하고 있어 무용교육은 균형적인 인격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향상 무용프로그램에서 마지막 단계에 실시하는 발표회 준비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모두가 재즈댄스를 하고 싶어 했지만, 학생들이 서게 될 무대가 좁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준비한 재즈댄스를 한국무용과 나눠서 하게 되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를 응원해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C교사의 인터뷰 내용이다.

재즈댄스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너희들이랑 하고 싶은데, 무대가 너희가 다 하기에 좁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야 한다. 너희들이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위기가 왔었어요. 한국무용 할 친구들이 몇 명 선출이 되고 뭐 하면서 막 화가 난 감정들을 표현을 했는데, 정말 한국무용의 탈출이 아니라 약간 현대적인 그런 건데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되게 멋있다고. 이 재즈댄스라고 해서 작품을 준비한 친구들이 서로 같이 리허설 부탁을 했는데 엄청 지지를 해준 거예요. ‘와 멋있다.’ 막 환호성 해주고,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거. 뭐하면 막 ‘뭘야.’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과정을 같이 올라갔다... 같이 한다라는 것... 되게 잘 했다. 막 격려해주고, 누가 뭘 잘 했는지 이런 것을 얘기해주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주변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 주는 거... 칭찬해주는 거... 그 친구들한테 되게 필요했던 거였거든요. 나머지 친구들도 서로 다른 것을 하지만, 모두 다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가 되게 위기였지만 또 그게 하나의 감동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 우리가 다 해냈어요.’ 라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용교사 C 인터뷰 중에서)

위에서 살펴본 무용교사 C의 인터뷰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비행청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무용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함과 동시에 친구의 존재감과 감정을 인지함으로써 나와 타인과의 화합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볼 수 있었다.

3) 긍정적 정서

무용프로그램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심리요인에 나타난 긍정적 정서(43/12.1%)영역의 세부요인으로는 즐거움(36/39.5%), 활력감(32/34.9%), 관심(17/18.6%), 자신감(6/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경(2004)은 무용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무용교육이 비행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소년원학교 학생들 20

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각 영역들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무용교육이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행청소년들이 무용수업에 참여하기 전,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만큼 미비하였으나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즐거움과 활력감, 무용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는 모습과 무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변화과정을 아래의 무용교사 A와 C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무용은 왜 배워야 되냐는 식으로... 쯤 그런 마음이 보였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원으로 앉아서 한마디씩 그날 수업에 대해서 느꼈던 점을 얘기하다가 보면은 한주, 한주, 지날 때 마다 수업을 왜 해야하고,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학생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무용교사 A 인터뷰 중에서)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네들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오기 싫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면 오기를 잘 했다고. 이걸 배운 것이 남는다. 라는 것을 말을 했을 때, 이 친구들한테는 교육이라는 혜택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았던거 같아요. (무용교사 C 인터뷰 중에서)

또한, 무용교사 C는 무용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인 언어의 사용을 이야기 하면서 처음에는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나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칭찬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무용프로그램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변화된 비행청소년들의 모습에서 교사들은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얼굴에 인상 쓰고, 그리고 칭찬을 처음에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낮선 거야. 뭐. 근데 시간이 거듭 해가면 갈수록 되게 진지해지고, '정말 정말 고맙다.', '좋았어요.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 뭘 했는데, 그걸 끝까지 관심, 긍정적인 관심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런 말 들으니까 자기 정말 기분이 좋다.' 긍정적인 자기 기분 좋은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칭찬을 칭찬으로 이해하는 것. 많은 경우에 칭찬을 칭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것, '빈정거리느냐. 자기 빈정 상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죠. (무용교사 C 인터뷰 중에서)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행청소년들은 무용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밝은 표정과 상호간의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칭찬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은 무용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칭찬과 긍정적인 언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 언어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학생들 자신 또한 긍정적 언어의 사용과 칭찬을 구체적인 내용의 칭찬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용프로그램이 신체표현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긍정적 언어사용의 효과는 청소년들의 생활을 더 즐겁고 결속력 있게 만들어 그들 사이에 오는 세대 간의 갈등, 우정 사이의 갈등, 사제 간의 갈등을 줄여준다. 또한 수 많은 사람들을 갈라놓은 상처를 치유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기도 한다(김영선, 2009: 12). 이처럼 긍정적인 언어의 사용은 비행청소년에게 긍정적 정서의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용교사 B는 무용수업 후의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학생들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매주 학생들과 만나면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애정과 사랑을 쏟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무용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변화를 보여 준 것이다.

리허설 하고 이제 편지 쓴 날, 정말 너무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순서다 외우고, 했다는 걸... 자기네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정말 부둥켜안고. 그랬던 것이 제일... 그렇죠. '무용이 이런 것인 줄 처음 알았어요.' '무용이 이렇게 재밌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말을 안 들었는데, 점점... 잘 해서, 선생님 처음에 죄송했어요.' '사랑해요, 선생님. 너무나 좋아해요.' 애들이 표현은 참 풍부하게 그것을 표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용교사 B 인터뷰 중에서)

무용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의적인 신체표현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으로 조화로운 인간형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소민, 2005: 9). 위의 무용교사 B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행청소년들은 무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비행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교와 가정의 부적응을 원인으로 불안한 정서 상태를 보이며 집중력이 낮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것 외에 반항적으로 반응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조절능력향상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를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사랑의 부족이라 생각하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다. 움직이기 싫어하고 무용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모습을 극복해 나가면서 비행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고 점차 무용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며 흥미를 보이게 된다. 무용교사들은 무용수업이 비행청소년의 성격을 완화하여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적절하게 조절해주며, 창의성을 개발해주고, 성취감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자기주도적이며 선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은 무용교육이라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장르를 통해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같이 집중해주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할 때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 줌으로써 그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통해 긍정적 정서의 세부요인인 즐거움과 활력감을 알아 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발표회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로부터의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은 무용수업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이 없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주도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자기조절능력향상 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함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심리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비행청소년에게 총15회기의 자기조절능력향상 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4명의 무용교수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354개의 원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원자료를 토대로 귀납적 내용 분석한 결과, 22개의 세부영역, 5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 되었다.

무용교수자가 비행청소년에게 자기조절능력향상 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요인의 일반영역은 감정조절, 자기인식, 긍정적 정서의 자기조절능력 심리요인으로 명명 되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정조절 요인은 조절된 자기조절, 과잉행동조절, 신체조절, 정서적 불안감조절, 참을성, 불안감 조절, 호흡조절 등의 7개

의 세부영역으로, 자기인식 요인은 자기 몸의 인식, 자기개발, 자발성, 주체성, 자기표현, 화합, 감정인지 등의 7개의 세부영역으로, 긍정적 정서 요인은 즐거움, 활력감, 관심, 자신감 등의 4개의 세부영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조절향상 무용프로그램을 통해서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심리적 요인의 변화과정을 알아 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변화의 모습은 무용교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감정조절, 자기인식, 긍정적 정서 영역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비행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고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무용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의 방향을 제시 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자기조절향상 무용프로그램을 통한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요인 탐색에 초점을 두고 비행청소년들의 무용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무용교수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여 알아본 것이다.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보다 깊이 있는 대화와 설문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변화되어지는 심리요인에 접근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일회적인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다양한 무용프로그램 개발과 비행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보다 긍정적인 미래로의 발판을 위한 사회생활 적응향상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인지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문헌

- 강 희(2001), “비행청소년의 충동조절을 위한 무용/동작요법 프로그램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선(2009), “긍정적 언어 사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김정미(2001),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한 무용프로그램 적용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화숙, 한혜리, 오레지나, 최재선, 박혜연, 신용숙, 송현주 (2005), **특수학교(소년원) 재량활동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 남재희(2004),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양육 태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민희(2006), “현행 초등학교 무용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상필(2008), “Street Dance를 통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가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소형, 유형근, 조용선 (2013), “특성화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학회지 14(2)**, 819-837.
- 오정옥(2005), “비행청소년의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미경(2004), “무용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세옥(2007), “창작무용수업이 여자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화(2011), “성격유형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범죄에 미치는 영향-명리학적 성격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창호, 양미진, 이희우, 이은경(2005),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요인 연구**, 서울:청소년상담원.
- 정소민(2005), “무용교육의 환경요인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주혜연(2003), “여자소년원생의 자기개념 향상을 위한 심리극 집단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형사정책연구소식**, 37, 25-35.
- 한동주(2006), “멘토링을 활용한 비행예방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한시완, 김선진(2011), “무용수들의 자기조절 변화 추정”,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3)**, 125-139.
- Baumann, N. & Kuhl, J.(2002), “Intuition, affect, and personality: unconscious coherence judgments and self-regulation of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1213-1223.
- Britton, B. K. & Tesser, A.(1991), “Effects of time management practices college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405-410.
- Cameron, L. D.(2003), “Anxiety, cognitive, and responses to health treats, In L. D. Cameron & H. Leventhal (Eds.)”, *The self-regulation of health and illness behavior*. London: Routledge.
- Karabeck, S. A. & Knapp, J. R.(1991), “Relationship of academic help seeking to the use of leaning strategies and other instrumental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221-230.
- Merriam, S. B.(1988), “Case stud research in education-A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Pintrich, P. R.(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assessing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4), 385-409.
- Thompson, R. A.(1991), “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4), 269-307.
- Zimmerman, B. J. & Martinez-Pones, M.(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ion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23, 614-628.
- Zimmerman, B. J.(1995), “Self-regulation involves more than metacogni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0, 217-221.